

# 폐지인 듯 폐지 아닌 폐지 수준 자사고정책... 학생만 혼란

(廢紙)

## 대학가 소식

### 고려대 2019 진로진학콘서트서 작년 학종 입시결과 공개

고려대학교는 지난 1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내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2019 진로진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20학년도 전형 안내와 2019학년도 입시결과 분석, 고려대 재학생과 수험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진로진학콘서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바로 알기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위 '금수저' 또는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입시 분석 결과가 공개돼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후기 석사과정' 신입 모집

동국대는 문화예술대학원이 오는 4월 15일까지 2019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과정은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등이다.

###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입학생 34명 2기 출범

건국대는 지난 9일 서울 광진구 교내 생명과학관에서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제2기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국대 반려동물산업 최고위과정 2기에는 총 34명의 입학생이 등록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8월 6일까지 진행된다. 교과과정은 ▲반려동물산업 시장동향 ▲세계 반려동물산업 트렌드 변화 ▲반려동물산업 분석 및 비즈니스 전략 ▲반려동물산업 정책과 법 ▲반려동물 그리고 미래 ▲반려동물산업과 첨단 기술의 결합 ▲인문경영 및 트렌드 등으로 구성돼있다.

### 인천재능대 간호학과 '생명사랑캠페인'

인천재능대학교는 간호학과 재학생들이 지난 3일~11일까지 청소년과 대학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명사랑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캠페인에는 인천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진행한 '보고듣고말하기'(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인천재능대 간호학과 학생 75명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현재 결정에 자사고 폐지정책 주축 시교육청 "자사고 학생선점권 여전"

재지정평가에 취소 반복·불복 등 법정분쟁 가능성... 혼란 야기 우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순으로 평가받는 교육 당국의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법률 시행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자사고 폐지 정책이 주춤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하는 자사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불복하는 법정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 고입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의 11일 판결에 따라 올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후기모집에서 일반고와 동시 선발하고 자사고 등 지원자는 지난해처럼 2지망으로 일반고에 이중지원이 가능하다. 자사고 등은 다만 후기 선발인 일반고에 앞서 전기의 우선선발권은 없어졌다. 반면 영재고와 과학고는 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전기 선발이 가능하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 당국도 현재 판결을 수용키로 했고, 지난해 '자사고·일반고 동시지원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현재 판결에 따른 올해 고입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이날 열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학생 선발 시기 및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관련 초·중·고 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형은 지난해와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다수 진보성향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판결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선발 시기를 후기로 전환해 일반고와 동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는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 학생이 이들 학교에서 떨어져도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둬으로써 여전히 자사고 등의 학교가 학생 선점권을 갖게 한 부분은 일반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 공약으로 사실상 5년 주기의 재지정평가 권한을 갖는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따른 자사고 취소는 교육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자사고는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송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 등 서울 22개 자사고 중 13곳이다.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시에 특화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 등 설립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상당수 자사고가 이번 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기도 했다. 자사고는 앞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지표가 불공정하다며 평가 보이콧을 시도했던 만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지난 2014년 재지정 취소가 반복되는 등의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첫 번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기준 미달의 일부 자사고가 지정취소를 받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마찰로 인해 지정취소 자체가 취소되기도 했다. 또 재지정평가 유예 후 재평가 등을 통해 결국 모든 자사고 지위가 그대로 존속되는 등 혼란이 있었다.

이와 별도로 전국 단위 자사고의 경우 지원 학생 거주지에 따라 일반고 배정 방식이 달라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제기된다. 또 전기에 학생들을 우선 뽑는 과학과·영재학교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크게 상승하면서 우선선발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상명대, LINC+ 육성사업 '매우 우수'

### '상명오름 4P+' 발전모델 추진

상명대학교는 LINC+사업단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단계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상명대는 앞서 지난달 27일 LINC+사업 2단계 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LINC+사업은 2017~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2018년 1단계, 2019년~202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나뉘어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통해 향후 3년을 지원하게 된다.



상명대 LINC+사업단이 매우우수평가를 받았다. /상명대학교

상명대는 1단계 사업운영 기간 중 현장 미러형 실습실, 오픈스튜디오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맞춤형 융합전공(빅데이터, 지능정보, 스마트

생산)을 신설했으며, 고유 교육체계인 4P(프로그램, 플레이, 프로젝트, 프로덕트)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은 각종 공모전 수상, 산학프로젝트, 지역사회문제해결 과제 수행을 통한 특허 출원, 협약기업 현장 실습 수행과 취업연계, 종합성과대회 개최 등 다양한 성과로 나타났다.

상명대는 1단계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는 사회맞춤형학과 선도모델인 '상명오름 4P+' 발전모델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비즈니스 기획·관리 교육을 통해 인문계 학생들이 IT역량을 강화하고 실무경력을 겸비해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사회맞춤형 선도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 성인남녀 하루에 1만6614원 쓴다

직장인과 대학생 등 성인남녀 5명 중 4명은 체감하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였다.

14일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2178명을 대상으로 체감물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5%가 캠퍼스·직장생활을 하며 체감하는 물가가 '비싼 편'이라고 답했다. 체감 물가가 '적당한 편'이란 답변은 18.6%, '저렴한 편'이란 답변은 0.9%였다. 특히 체감 물가가 비싸다는 답변은 직장인 그룹(87.2%)이 대학생 그룹(76.8%)보다 10%포인트 높았다.

식비 > 교통비 > 커피 등 간식 순  
10명 중 8명 "체감 물가 비싸"

응답자들은 하루 평균 1만6614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의 하루 평균 지출(2만506원)이 대학생(1만4482원)보다 5000원 가량 많았다. 지출 비중(복수응답)은 식비(86.8%), 고정 교통비(76.6%), 커피 등 간식(50.6%) 순으로 높았고, 이외에 모임 비용(29.0%), 복장·화장품 구입(17.5%),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10.0%)로 지출했다.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복수응답)은 교통비로 '지각 택시비 등 추가 교통비'(44.0%), '고정 교통비'(40.2%)가 가장 부담스러운 소비 항목 1,2위에 올랐다.

/한용수 기자

## 허준녕 육군 군의관, AI 기반 '뇌졸중 예후 예측모델' 개발

### 평소 프로그래밍 공부 즐겨

일선 전방부대에서 장병들의 건강을 돌보는 육군 군의관이 뇌졸중의 치료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예측모델을 개발해 화제다.

육군은 14일 제21보병사단 통일대대 군의관 허준녕 대위(31)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가 개발한 뇌졸중 치료 후유증 예측모델은 지난달 20일 뇌졸중 분야에서 세계적인 의학잡지인 Stroke의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평소 프로그래밍을 즐겨 공부하던



뇌졸중 치료 후유증 예측모델을 개발한 허준녕 대위가 장병을 진찰하고 있다. /육군

허 대위는 인공지능의 무한한 능력을 뇌졸중 치료에 접목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7개월 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얻은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가 개발한 모델은 기존 70%미만이었던 결과 예측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허 대위가 개발한 AI모델의 구동방식은 38개의 인자(因子)를 입력하면 치료 3개월 후 환자상태를 AI모델이 예측하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본 연구로 뇌졸중 환자의 후유증을 예측할 수 있어 치료여부와 방법에 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한용수 기자